

제 1 교시

국어 영역

출수형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엇그제 젊었더니 하마 어이 다 늙거니
 소년 행락(少年行樂)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없다
 늙어서야 **서러운 말** 하자 하니 목이 맨다
 부생모육(父生母育) 신고(辛苦)하여 이내 몸 길러 낼 제
 공후 배필(公侯配匹)은 못 바라도 군자 호구(君子好逑)* 원하더니
 삼생(三生)의 원업(怨業)이요 월하(月下)의 연분(緣分)으로
 장안(長安) 유협(遊俠) 경박자(輕薄子)를 꿈같이 만나 있어
 당시에 마음 쓰기 살얼음 디디는 듯
 삼오 이팔(三五二八) 겨우 지나 천연 여질(天然麗質) 절로 이
 니
 이 얼굴 이 태도(態度)로 백 년 기약(百年期約)하였더니
 연광(年光)이 훌훌하고 조물(造物)이 시샘하여
 봄바람 가을 물이 베을에 북 지나듯
 설빈화안(雪鬢花顏) 어디 가고 면목가증(面目可憎) 되었구나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느 임이 날 사랑할까
스스로 참괴(慚愧)하니 누구를 원망(怨望)하라

(중략)

돌이켜 풀어 헤아리니 이리하여 어이하리
 청등(靑燈)을 돌려 놓고 녹기금(綠綺琴) 비스듬히 안아
 벽련화(碧蓮花) 한 곡조를 시름 좇아 섞어 타니
 소상야우(瀟湘夜雨)의 댓잎 소리 섞여 도는 듯
 화표(華表)* 천 년(千年)의 별학(別鶴)이 울고 있는 듯
 옥수(玉手)의 타는 수단(手段) 옛 가락 있다마는
 부용장(芙蓉帳) 적막(寂寞)하니 뉘 귀에 들리겠는가
 간장(肝腸)이 구곡(九曲) 되어 굽이굽이 끊겼어라
 차라리 잠이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벌레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가
천상의 견우직녀(牽牛織女) 은하수 막혔어도
 칠월 칠석(七月七夕) 일 년 일도(一年一度) 실기(失期)치 않
 거든
 우리 임 가신 후는 무슨 약수(弱水) 가렸관대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그쳤는고
 난간(欄干)에 빚겨 서서 임 가신 데 바라보니
 초로(草露)는 맺혀 있고 모운(暮雲)이 지나갈 제
 죽림(竹林) 푸른 곳에 새소리 더욱 쉼다
 세상(世上)의 서러운 사람 수없다 하려니와
 박명(薄命)한 홍안(紅顏)이야 **나 같은 이 또 있을까**
아마도 이 임의 탓으로 살동말동 하여라
 - 허난설헌, 「규원가(閨怨歌)」 -

* 군자 호구: 군자의 좋은 배필. 「시경」의 구절에서 따온 말.
 * 화표: 묘 앞에 세우는 문. 망주석 따위가 있음.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거를 회상하며 현재의 처지에 대해 탄식하고 있다.
- ② 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음악적 효과를 얻고 있다.
- ③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슬픔을 심화하고 있다.
- ④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⑤ 대구법을 사용하여 운명에 맞서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규원가」는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는 남편을 원망하면서도 그 원인이 자신에게도 있음을 한탄하는 규방 가사이다. 이 작품은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예속되었던 조선 시대의 봉건적 윤리 속에서 작가 자신이 여성으로서 겪어야 했던 외로움과 한을 다양한 비유적 기법을 사용하여 품격 높은 시적 감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① ‘서러운 말’에는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화자의 운명과 처지에 대한 한이 담겨 있겠군.
- ② ‘스스로 참괴하니’를 통해 화자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 대해 자신을 책망하고 있군.
- ③ ‘천상의 견우직녀’는 임과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화자의 처지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화자의 슬픔을 대변하고 있군.
- ④ ‘나 같은 이 또 있을까’를 통해 화자는 홀로 지내는 자신의 외로움을 강조하고 있군.
- ⑤ ‘아마도 이 임의 탓으로 살동말동 하여라’에는 남편을 원망하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 있군.

3. 윗글과 <보기>의 **꿈**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한밤중에 혼자 일어나 문노라 이내 **꿈**아
 만리(萬里) 요양(遼陽)*을 어느 사이에 다녀온고
 반갑다 학가 선용(鶴駕仙容)*을 친히 뵈 듯하여라
 - 이정환, 「비가(悲歌)」 제1수 -

* 요양: 청나라 심양.
 * 학가 선용: ‘왕세자가 타던 수레’와 ‘신선의 용모’를 뜻하는 말로, 불모로 잡혀간 두 왕자를 이룸.

- ①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바탕이 되어 있다.
- ② 화자의 내적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 ③ 대상에 대한 비판 의식을 우회적으로 드러낸다.
- ④ 화자와 대상이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
- ⑤ 현실의 문제가 환상이라는 장치로 극복된 결과를 보여준다.

[4~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철학자 알랭 바디우는 정치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지도자를 뽑아 정부를 잘 운영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사회 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사회 구조의 변화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에 대해 바디우는 ㉠ ‘사건’을 계기로 ㉡ ‘진리’가 만들어지면서 사회 구조가 변화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바디우에 따르면, 사건이란 기존의 사회 구조를 뒤흔들 만큼 충격적인 일이면서 미리 계획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사건은 의도적으로 발생시킬 수 없는 것으로,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일으키지만 사회 전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내의 특정한 지점에서 발생한다. 바디우는 사건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지만 사회 구조 변화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는 사건의 대표적 예로 1871년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났던 파리로코뮌을 들고 있다.

바디우는 기존의 사회 구조를 벗어나는 독특한 사건이 발생하면 사회 구성원들은 이 사건을 전에 없던 ‘이름’으로 부르고 이 이름은 사건이 사라진 후에도 사회에 흔적으로 남는다고 본다. 사건이 사라지고 난 후, 개인이나 집단은 사건의 이름을 통해 사건을 떠올리며 사회 안의 각 요소들과 사건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시도를 한다. 즉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 안의 제도, 행위, 발언 등을 검토하여 그것이 사건을 이어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가려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사회 안의 요소들 중에서 사건에 충실한 요소와 그렇지 않은 요소를 가려내는 이러한 작업을 바디우는 ‘탐색’이라고 부르고, 탐색의 판단 기준을 ‘충실성’이라고 부른다. 이때 탐색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회 안의 특정한 요소를 선택해 그것의 충실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 요소들이 사건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조사한다.

바디우는 탐색을 통해 사건에 충실한 것으로 분류된 요소들이 진리를 ㉢ 이룬다고 말한다. 즉 바디우에게 있어 진리란 거짓에 반대되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계기로 이루어진 탐색의 결과이자 사회 안에서 사건에 충실한 요소들의 집합체이다. 바디우는 이러한 진리는 정치 이외에도 과학, 예술, 사랑의 영역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

바디우는 진리가 만들어지는 과정, 즉 진리 절차에서 진리를 이루는 부분들을 ‘주체’라고 부른다. 진리를 만들어 가는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 발언 중에서 충실한 요소들이 모여 주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진리 절차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 자신이 곧 주체는 아니며, 그 사람의 행위나 발언 중 사건에 충실한 것만이 주체의 일부가 된다. 이러한 바디우의 시각이 개인을 보잘것없게 만든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 이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다. 어떤 사람이 정치적 활동을 하면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면 이 활동은 정치적 주체의 일부이면서 예술적 주체의 일부가 될 수 있으므로 개인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바디우는 자신의 철학을 펼치면서 사건은 진리가 만들어지는 데 필수적이지만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니라고 강조하며, 사회 구조의 변화를 위해 중요한 것은 우연한 사건보다 시간의

경과 속에서 만들어지는 진리라고 말한다. 이는 바디우가 말하는 ‘용기’의 중요성과도 연결된다. 바디우에게 있어 용기란 진리를 좇는 용기, 즉 사회 안의 요소들을 진리에 속하는 것과 아닌 것으로 나누는 작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용기이다. 결국 바디우는 사회 구조의 변화를 위해서는 앞으로의 일이 아니라 이미 일어났던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건을 이어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4. 윗글에 제시된 ‘바디우’의 견해와 부합하는 것은?

- ① 정치의 목적은 정부 운영을 잘하는 것이다.
- ② 사건은 사회 전체에서 일어난 것이어야 의미가 있다.
- ③ 개인은 사회 안의 제도나 행위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
- ④ 거짓이 아닌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진리 절차라고 한다.
- ⑤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5. ㉠과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시발점이 된다.
- ② ㉠은 ㉡이 만들어지는 데 필수적이지만 ㉠ 자체가 ㉡은 아니다.
- ③ ㉡을 이루는 요소는 ㉠을 이어 갈 수 있다고 판단된 것들이다.
- ④ ㉠은 일시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며 ㉡은 시간의 경과 속에서 만들어진다.
- ⑤ ㉡보다 ㉠을 발생시키기 위한 노력이 사회 구조의 변화를 위해 더 중요하다.

6.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인을 하나의 진리 절차에 헌신하는 존재로 보는 것이다.
- ② 개인을 사회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지닌 존재로 보는 것이다.
- ③ 개인을 다수의 진리 절차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로 보는 것이다.
- ④ 개인을 진리의 가치를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이 되는 존재로 보는 것이다.
- ⑤ 개인을 진리에 부합하는 행위에만 동참하는 도덕적 존재로 보는 것이다.

7. 밑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프랑스는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하며 프로이센과 굴욕적인 화평 조약을 맺게 되었다. 이후 임시 국방정부의 수반인 아돌프 티에르가 국민 방위군의 무장 해제를 명령하고 수비대가 보유하고 있던 대포를 철거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분노한 파리 시민들은 몽마르트 언덕에 모여 자연발생적인 민중 행동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시청을 점거하고 혁명적 자치 정부를 수립하여 여성 참정권 실현, 아동 야간 노동 금지 등의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자치 정부는 두 달 정도 지속되다가 사라졌다. 이 일은 역사에서 시민 계급이 자치적으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 최초라고 평가되며 ‘파리코뮌’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 ① 바디우는 파리 시민들에 의해 혁명적 자치 정부가 수립된 일은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기존의 사회 구조를 뒤흔들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보았겠군.
- ② 바디우는 ‘파리코뮌’이라는 이름은 파리 시민들의 자연발생적인 민중 행동이 사회 안에 남긴 흔적이라고 보았겠군.
- ③ 바디우는 파리 시민들이 민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연합하여 일으킨 ‘파리코뮌’은 사회 구조의 변화를 이루어 내기 위한 시도를 지속한 결과 일어난 것이라고 보았겠군.
- ④ 바디우는 프랑스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 안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 여러 요소들과 ‘파리코뮌’의 관계를 조사함으로써 진리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았겠군.
- ⑤ 바디우는 현재의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파리코뮌’을 이어 가기 위한 탐색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고 보았겠군.

8.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성(構成)한다고
- ② 성취(成就)한다고
- ③ 탐구(探究)한다고
- ④ 포괄(包括)한다고
- ⑤ 표방(標榜)한다고

[9~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집이 거기쇼?”

고깔모자를 쓴 사람은 색안경이라면 질색이다. 그에겐 색안경을 쓴 사람은 형사다. 그리고 형사는 기피자를 단속한다. 그는 직장에서 쫓겨났을 때까지 매달 월급날이면 정기적으로 형사의 ‘예방’을 받은 적이 있다.

“예? 예. 선생님은요.”

“나요? 난 거긴 배꼽 따고 처음이오.” / “호 호 호.”

여자의 웃음 소리는 김 씨의 상상을 망쳐버린다. 그는 장님이

되는 생각을 비장한 마음 없이는 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 생각이 바야흐로 절정에 도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킬킬거리는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살찐 여자. 그리고 그는 안마장이. 그러나 그는 별로 서운치 않다. 포동포동한 여인을 안마한다는 생각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를 부르는 여자는 그의 애인이고 킬킬거리며 웃는 사람은 그녀의 남편이다. 그는 그녀의 남편을 안마한다. 그녀는 바로 곁에서 시중들고 있지만 안경을 낀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는 안마를 끝마친다. 그녀는 그에게 몇 푼의 돈을 쥐여준다. 그는 그것을 받아놓고 다시 길거리로 나온다. 그리고 통소를 꺼내 불기 시작한다.

“아, 인제 떠날래나?”

창문인 줄만 알았던 앞쪽의 유리창 일부가 밑에까지 움푹 패이면서 열리자 장갑 낀 손이 쑥 들어오더니 턱과 뺨 위로 수염이 검실검실 돋은 운전사의 머리를 차 안으로 끌어들인다. 머리가 들어오자 잠바가 따라 들어오고 그 뒤로 호주머니께가 허영게 닳은 낡은 코르덴 바지가 딸려 들어온다. 운전사는 자리에 앉자 한 손으로 운전륜을 잡고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본다. 손님 머릿수가 적은 것이 눈에 안 차는 모양이다. 끄 하고 돌아와서 한쪽 어깨를 기울이고 스위치를 넣더니 부르릉 발동을 건다. 삼십 분 동안이나 기다린 손님들이 오히려 미안해해야 할 모양이다. 우리들은 왜 이렇게 수가 적은가! 정원 사십팔 명에 한 백 명쯤 타가지고 숨도 못 쉬고 북적거리고 있었다라면 운전사가 조금은 미안해했는지도 모를 텐데.

“애, 이제 슬슬 떠나보련?”

잠바를 입은 사나이는 엉덩이부터 차에 오르고 있는 여차장을 쳐다보고 있다.

“네, 곧 가요.”

차장은 질문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생각이 전혀 없다.

“아직 안 가?”

“곧 가요.” / “여기가 중국집인 줄 아니?”

“왜 내가 중국집에 있어요?”

㉠ 차장은 비로소 뒤를 돌아본다.

“너, 곰이로구나?” / “내가 왜 곰이어요? 아저씨 뭘데요?”

“나? 난 네 할배다.”

차가 달리기 시작하자 고깔모자는 자연스럽게 좌우로 움직일 수 있다. 특히 왼쪽으로. 여자는 그럴 때마다 창문 쪽으로 피하는 척한다. 그리고 미안한 생각에서 그를 쳐다보아준다.

“군하리엔 뭇 하러 가세요?” / “놀러요.”

“일행이세요?”

“예.” ㉡ 그는 목소리를 낮춘다. “저 사람은 늙은 대학생 김 씨. 이쪽은 세무서 직원 이 씨. 그리고 난 얼마 전까지 국민학교 선생. 성은 박 씨. 대개 이렇소.”

“정말 묘하게 어울리셨어요. 친구분들이세요?”

“우린 한 집에 살고 있지요.” / “어머, 그러세요?”

“그럼은요. 우리집에 저 두 사람이 하숙하고 있지요.”

김 씨는 차창 유리에 이마를 댄다. 차체의 진동이 그대로 전달되어온다. 그는 이마를 땀다.

㉢ “이 차도 달릴 줄 아는군. 난 세워두려고 만든 줄 알았더니.”

“그게 다 우리 차장이 ‘오라이’ 한 덕분이지. 애, 안 그래?”

잠바를 입은 이 씨는 나일론 천의 윤이 나는 검은빛 바지를 입은 여차장의 엉덩이가 크다고 생각한다. 차장은 아직 화가 나 있다. 이 씨는 잠바 호주머니에서 껌을 한 통 꺼낸다. 김 씨

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 달리는 버스는 유쾌하다. 속이 훑 트이는 것이 만사가 술술 풀릴 것 같다.

“너 이거 먹을 줄 아니?”

이 씨가 껌을 하나 쑥 뽑아서 차장의 등뒤로 들이민다. 차장은 뒤를 돌아보고 피식 웃는다.

㉔ “꿈이 어떻게 껌을 먹어요?”

“뭐? 하 하. 제법이구나. 똥어. 꿈은 원래 재주를 잘 부리지. 먹어줘. 손해될 거 있지?”

차장은 껌을 받는다. 이 씨는 옆에 있는 김 씨에게 그리고 뒤에 앉은 박 씨와 그 옆의 여자에게까지 고루 껌을 하나씩 권한다. 그리고 남은 하나를 끄집어내서 껌질을 벗긴다.

박 씨는 여자와 급속도로 친해지고 있다.

“집이 원래 군하리요?”

“아뇨. 인천예요.”

“아, 이사하셨군.”

“아뇨, 그냥 거기서 살아요. 엄마하고 언니하고... 그렇게 그냥 셋이 살아요.”

“인천서요?” / “아뇨. 군하리서요.”

“인천엔 아무도 없어요?”

㉕ “아뇨. 거기두... 아이, 뭘 그렇게 꼬치꼬치 물어세요?”

“참, 그렇군.”

참 그렇다니. 김 씨는 실소한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지만 등뒤에서 하는 이야기를 죄다 듣고 있다. 그는 항상 시치미를 뚝 떼고 있기를 좋아한다. 알고도 모른 척, 모르고도 모른 척. 그것은 대단히 즐거운 일이다. “당신 아무래도 수상한데?” 뭐가? “어제 두시에서 다섯시까지 사이에 어디에 있었수?” 건 왜 물우? “안 되지. 난 못 속이우. 박형은 숙여두 난 못 속인단 말이우.” 허 허 허 허.

그는 슬쩍 이 씨를 옆눈질해 본다. 제 비록 약다 하나 이쪽에서 가가대소만 하고 있는 한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으리오.

“앉어, 응? 서 있으면 몸에 해롭지.” / “괜찮아요.”

“아, 지금이야 괜찮지. 이 댐에 커서 시집갈 때 해롭단 이야기야.”

차장은 얼굴을 붉히고 중간쯤에 있는 빈자리에 가서 앉는다. 이 씨는 빙그레 웃는다. 실속이 없는 줄 알면서도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면 그는 기분이 좋다. 그는 잠바 목 속에서 하얀 목도리를 조금 꺼내올려 컷부리를 포근히 감싸주고 의자에 등을 기대면서 담배를 뽑아 문다. 불을 붙일 생각을 하지 않고 창밖을 내다본다. 뿌툰이 흐린 하늘에는 눈발이 이따금씩 희끗거리고 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생각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뒤에 앉은 박 씨만이 낮은 목소리로 여자와 소근거린다. 몇 쪽은 몇 날의 웃음소리만 가끔 엔진 소리 위로 솟아오를 뿐, 대체로 무슨 이야긴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 서정인, 「강」 -

9.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여차장’은 버스가 정원을 채우지도 못하고 출발한 것에 대해 기분이 상해 있다.
- ② ‘김 씨’는 ‘이 씨’의 옆에, ‘박 씨’는 ‘이 씨’의 뒤에 앉아 있다.
- ③ ‘이 씨’는 ‘여자’에게 군하리에 가는 이유를 묻고 있다.
- ④ ‘운전사’는 손님들에 대해 미안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 ⑤ ‘김 씨’는 일행이 하숙하고 있는 집의 주인이다.

10. ㉔과 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㉔은 인물이 하던 상상의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
- ② ㉕은 다른 인물과의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고 있다.
- ③ ㉔으로 인해 조성된 긴장감은 ㉕을 통해 해소되고 있다.
- ④ ㉔은 인물에 대한 호감을 강화하고, ㉕은 인물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⑤ ㉔과 ㉕은 모두 인물의 상상 속에서만 들리는 것이다.

11. ㉖~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㉖: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인물에 대해 지금까지는 별로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② ㉗: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에 대해 심리적인 거리를 두고자 함을 엿볼 수 있다.
- ③ ㉘: 비꼬는 말투를 통해 버스가 늦게 출발하게 된 상황에 대한 불만을 엿볼 수 있다.
- ④ ㉙: 상대방이 앞에서 자신에게 했던 농담을 활용하여 대응하고 있다.
- ⑤ ㉚: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 알려고 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1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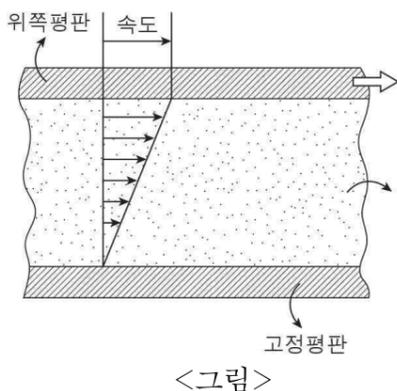
윗글에서는 인물에 대한 정보가 부분적이고, 파편적으로 제시된다. 이들이 나누는 대화는 제자리에서 걸돌며 진정한 의미의 소통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일반적인 소설에서 사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전개되는데 윗글에서는 사건의 자연스러운 전개를 방해하는 서사적 장치들도 사용되고 있다.

- ① ‘박 씨’에 대한 정보는 ‘고깔모자’, ‘기피자’, ‘전직 교사’와 같이 부분적인 것들이 흩어져서 제시되고 있다.
- ② 한집에 사는 ‘김 씨’, ‘이 씨’, ‘박 씨’ 들은 서로 의미 있는 대화를 하고자 하지만 진정한 소통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 ③ ‘이 씨’가 ‘여차장’에게 무의미한 농담을 건네는 모습에서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박 씨’와 ‘김 씨’, ‘이 씨’ 등으로 서술 대상을 계속 바꾸어 서술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서사 전개를 지연시키고 있다.
- ⑤ ‘김 씨’가 장님이 되는 상상에 빠져드는 장면이 다른 인물들의 대화에 바로 이어져서 서사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으로 액체나 기체처럼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가 쉽게 움직이거나 입자 간의 상대적인 위치를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물질을 유체라고 ㉠ 부른다. 유체에 작용하는 힘과 유체의 운동 원리를 ㉡ 다루는 유체역학에서는 응력과 점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유체의 특성을 설명한다.

응력이란 어떤 물질에 외부에서 힘이 가해졌을 때 물질의 내부에서 이에 대항하여 외부의 힘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응력은 작용하는 방향에 따라 종류를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물질의 표면과 평행하게 작용하는 응력을 전단응력이라고 한다. 유체는 이러한 전단응력이 작용할 때 그 형태가 연속적으로 변형된다. 이때 유체가 변형되는 양상은 유체가 가지고 있는 점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점성이란 유체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유체가 운동에 저항하는 성질을 말한다.



<그림>의 실험과 같이 매우 넓은 두 평행평판 사이에 어떤 유체가 들어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때 평행평판 중 아래쪽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고정평판이고, 위쪽평판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할 때 위쪽평판에 P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면 위쪽평판이 P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게 된다. 위쪽평판의 운동에 따라 평판 사이의 유체에는 전단응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후 유체를 ㉢ 이루는 입자들은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 유체는 연속적으로 그 모습이 변형된다. 이때 위쪽평판에 접하고 있는 유체 입자들은 위쪽평판과 동일 속도로 이동하고, 고정평판에 접하고 있는 유체 입자들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는 유체가 지닌 점성 때문에 ㉣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그림>에서처럼 두 평판 사이에 있는 유체 입자들의 속도는 고정평판으로부터 위쪽평판 사이의 거리에 비례하여 일정한 비율로 커진다. 그런데 <그림>에서 전단응력이 증가하게 되면 유체 입자들의 속도도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유체의 변형이 커져 전단응력에 따른 시간당 유체가 변형되는 변화율을 의미하는 전단변형률도 커지게 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text{전단응력} = \text{점성계수} \times \text{전단변형률}$$

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식에서 점성계수는 유체가 지닌 점성을 수치화하여 표현한 값으로, 유체마다 고유의 값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성계수의 특징 때문에 전단응력이 일정하다면 점성계수에 따라 전단변형률은 달라지게 된다. 단, 유체의 점성계수는 온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점성계수가 전단응력이나 전단변형률의 크기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유체를 뉴턴 유체라고 한다. 뉴턴 유체는 점성계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전단응력이 증가함에 따라 전단변형률

도 일정하게 증가하게 되는데, 이를 전단변형률을 가로축으로 하고 전단응력을 세로축으로 하는 그래프로 나타내면 일정한 기울기를 가진 직선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때 기울기는 점성계수를 의미한다.

이와 달리 비뉴턴 유체는 전단응력의 크기에 따라 점성계수가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단변형률과 전단응력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기울기가 변하는 곡선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비뉴턴 유체에는 전단응력이 증가함에 따라 점성계수가 감소하는 전단희박 유체와, 전단응력이 증가함에 따라 점성계수가 증가하는 전단농후 유체가 있다. 또한 전단응력이 일정한 크기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변형이 없다가 항복응력이라고 지칭되는 일정한 전단응력을 초과하면 변형이 ㉤ 일어나는 빙햄 유체 등이 있다.

13.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전단응력이 작용하면 유체의 형태는 변형된다.
- ② 응력과 점성의 개념으로 유체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 ③ 점성은 유체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상호 작용 때문에 나타난다.
- ④ 전단응력은 물질의 표면에 평행하게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다.
- ⑤ 액체와 기체는 입자 간의 상대적인 위치를 쉽게 변화시킬 수 있다.

14. <보기>는 윗글의 실험 설계에 따라 실험한 결과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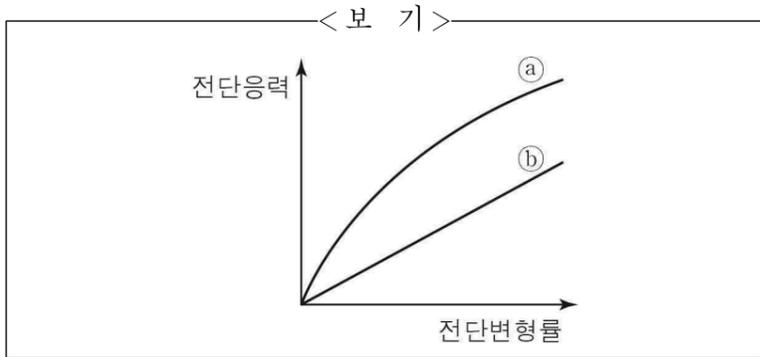
< 보 기 >

[실험 결과]			
측정 항목 \ 실험	A	B	C
전단변형률	10	20	10

* 온도와 압력은 모든 실험에서 동일하다.
* 실험에 사용된 유체는 각각 다른 뉴턴 유체이다.

- ① A에서 사용된 유체의 경우, 전단응력이 증가한다면 전단변형률은 증가하겠군.
- ② B에서 사용된 유체의 경우, 전단응력이 증가하더라도 점성계수는 변하지 않겠군.
- ③ A와 B에서 사용된 각각의 유체에 작용한 전단응력이 같다면 점성계수는 A에서 사용된 유체가 크겠군.
- ④ A에서 사용된 유체의 점성계수가 C에서 사용된 유체의 점성계수보다 크다면, 유체에 작용한 전단응력은 A에서 사용된 유체가 더 크겠군.
- ⑤ B와 C에서 사용된 각각의 유체의 점성계수가 같다면, C에서 사용된 유체에 작용한 전단응력이 더 크겠군.

15. <보기>는 유체 ㉠과 ㉡의 특성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과 ㉡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점성계수가 변하는 유체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은 전단응력에 따라 그래프의 기울기가 달라지는 유체겠군.
- ③ ㉡는 온도가 변화하면 그래프의 기울기가 달라질 수 있겠군.
- ④ ㉡는 전단응력에 따라 유체가 운동에 저항하는 성질이 달라지겠군.
- ⑤ ㉡는 전단응력 값이 증가함에 따라 전단변형률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유체겠군.

16.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인 반응이다.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마요네즈는 단순히 용기를 기울이기만 해서는 흘러나오지 않고, 일정한 힘 이상으로 눌러야만 나오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마요네즈는 전단응력이 증가하여 (㉠)보다 (㉡) 변형이 일어나는 (㉢) 유체이기 때문이다.

- | | ㉠ | ㉡ | ㉢ |
|---|-------|------|------|
| ① | 항복응력 | 커져야 | 빙햄 |
| ② | 항복응력 | 커져야 | 전단농후 |
| ③ | 항복응력 | 작아져야 | 전단희박 |
| ④ | 외부의 힘 | 커져야 | 전단농후 |
| ⑤ | 외부의 힘 | 작아져야 | 빙햄 |

17. 문맥상 ㉠~㉣과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 그 가게에서는 값을 비싸게 불렀다.
- ② ㉡: 회의에서 물가 안정을 주제로 다루었다.
- ③ ㉢: 우리는 모두 각자의 소원을 이루었다.
- ④ ㉣: 사진의 목격자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
- ⑤ ㉣: 경기가 시작되자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면은 여백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